

'한국 대표 관광샷별' 로 떠오른 완주군

각종 방송사·중앙 일간지 등에 화암사·오성한옥마을·고산 미소시장 등 조명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들이 국내 주요 방송사와 중앙 일간지를 통해 연일 집중 조명되는 가 하면 관광객 수도 크게 늘어나는 등 완주군이 '한국의 대표 관광샷별'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날 전 저녁 11시 JTBC 방송사의 여행 기획 다큐 '아티스트 웨이' 완주편 총 2부작 중 1편이 공중파를 통해 완주의 비경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시청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아티스트들이 영감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행 다큐멘터리인 이 프로그램은 아이돌그룹인 위너(WINNER)와 유현준 건축가, 가수 소연 등이 출연해 화암사와 고산 미소시장, 소양 오성한옥마을, 운주 캠퍼스, 대둔산, 경각산 패러글라이딩 체험 등의 모습을 담아 오는 30일 저녁 11시 제2편 방송을 앞두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 기행'에 완주 맛의 종착지로 목은지남부음당, 숯불채지갈비, 홍어백반집이 소개되어 미식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 지난달에는 KBS TV 6시 인기 프로인 내 고향 '날길따라 고향기행'에 완주군 구이면의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과 구이저수지 둘레길,

구이안덕마을 등이, JTBC(대전방송) '화첩기행'에는 만경강과 비비정, 유취열미술관 등이 각각 비중 있게 소개돼 호평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KBS TV '슈터'에 위봉산성이, KBS2 TV '굿모닝 대한민국라이브'에 대둔산과 화암사 등이 공중파를 통해 알려지는 등 완주군의 구석구석 자연·문화·음식 콘셉트에 담은 '감성 여행도시'가 방송매체의 인기를 끌고 있다.

방송사 촬영 외에 중앙일간지 여행기자단과 인플루언서들의 취재 열풍도 계속되고 있다. 중앙일간지 10개 매체는 지난달부터 만경강과 경천 문물골 편백숲, 화암사, 고산미소시장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여행과 레저 코너를 통해 완주군 명소를 상세히 기획 보도하고 있다.

월간 여행전문 매거진인 KTX 매거진과 SRT 매거진, 여행스케치, 트래비 등도 완주군의 주요 관광지를 자세히 소개하는 등 울돌머 주요 방송사와 중앙 일간지, 전문매체의 집중조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어 여행업이 크게 위축됐음에도 완주군의 관광객 수는 1~3월 중에

78만 명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보다 무려 457%의 놀라운 증가율을 나타냈다.

여기에 지난달 관광두레 사업 추진을 위한 '완주군 관광콘텐츠 진단' 연구에서는 완주군 방문 관광객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완주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변, 완주군이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의 대표 관광샷별'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완주군이 지난 3월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서울 용산역과 광주 송정역,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등 7개소에서 진행하는 '전국 순회 완주관광 사진 전시회'가 현지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관광 1번지 완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박성일 군수는 "완주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공격적인 관광자원 홍보에 나선 결과 그간 숨겨진 관광자원들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고, 주요 미디어 매체가 주시하는 대표 관광지로 부상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완주 관광 자원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형문화재 작품 온·오프라인 경매로 만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 28일 '공예육선'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전주공예품 전시관이 무형문화재의 작품을 경매하는 '공예육선'을 오는 28일 진행한다.

공예육선은 공예문화의 가치와 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엄재수 장인과 △제 53호 부거리용기장 안시성 장인의 작품을 경매한다.

경매에 오르는 작품은 엄재수 장인의 '합죽 다절선' 외 3점, 안시성 장인의 '용기 일단지' 외 3종으로 총 8점이다. 작품 감정가는 8만원(용기 브런치집시)부터 200만원(우각, 대모 칠집)까지 다양하다.

경매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 경매와 현장 경매가 동시에 진행된다. 사회자가 입찰가를 제시하면 응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최종 1명의 응찰자가 나올 때까지 경매한다. 온라인 참여자는 댓글로, 현장 참여자는 현장에 준비된 소품을 활용해 응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예육선은 경매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가장 높은 금액의 경매 낙찰자와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을 구매한 참여자에게 부를 불러오는 부귀도 족자(시가 50만원 상당)가 선물로 제공된다.



2021 공예육선 진행 모습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공예육선을 통해 우리 공예문화의 가치가 대중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경매를 통해 작품 소장뿐 아니라 우리 문화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 희망자는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식 유튜브에 접속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www.jeonjucraft.or.kr)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태권도원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태권도원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태권도를 활용한 교육·수련·체험 등 시설 기반 콘텐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태권도원만의 차별화 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태권도 수련인·학생·가족·외국인 등 태권도원을 찾는 단체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한 '수련·체험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부문'과 태권도원에서 운영 가능한 '교육·연수형 프로그램 부문'의 2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며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총 상금은 2천만원으로 부분별 대상자에게는 4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서면심사와 적합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은 향후 고도화 작업을 거쳐 태권도원의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태권도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권도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로 태권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요강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라권 관광 활성화 위한 공동설명회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광주·전남관광재단과 함께 국내 주요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전라권 공동 설명회 및 팸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4~26일까지 3일 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 첫 날에는 지역별 베스트 관광지 및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소개 그리고 특색 있는 전라권 공동 여행코스를 참여자들에게 제안하는 공동설명회가 진행됐다.

이어 진행되는 수요자 맞춤 테마 여행 상품개발을 위한 공동 팸투어는 광주 이이남 스튜디오와 팽관마을 등을 거쳐 전남 순천 및 구례 일원 그리고 전북의 부안 격포항 및 군산 선유



도를 순회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이번 팸투어는 재단이 초광역 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작년 11월 18일 전북-광주-전남 '전라권 관광·마이스 활성화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계 사업의 일환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누리 문화장터 가맹점 공개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문화누리 문화장터에 참여 가맹점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누리 문화장터는 지역적 여건, 고령 등으로 자발적으로 문화 향유가 어려운 대상에 대해 효율적인 카드사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맹점은 문화누리 문화장터 뿐만 아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기획

사업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맹점이다. 주요 기획 사업은 문화누리 문화 박스, 문화누리 문화의 길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6월 30일까지 이메일(jmhnrui@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주소로 두고, 전화 결제(수기 결제)서비스가 가능하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물품을 판매 및 배송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다. 문화누리카드 미등록 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먼저 진행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서 인공동굴 무더기 확인

공과대학 'ㄷ' 형으로 감싸고 있는 능선 경사면에 7기 배치

군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인공동굴 7기가 확인되었다.

동굴은 군산대학교 공과대학을 'ㄷ' 형으로 감싸고 있는 능선의 경사면에 배치되어 있다.

동굴 6기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고, 1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옛 항공사진 자료를 통해 입구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4기의 동굴은 군산대학교 미용역사 길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찾아낸 것이다.

현재 내부 확인이 가능한 1기의 동굴은 수십 년 간 막혀있던 동굴 입구의 철가 진행되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길이 약 30m, 높이 3.2m, 너비 3.4m로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내부 곳곳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시설물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굴 중 6.25전쟁 좌익세력에 의한 당시 민간인 120여 명이 학살당했던 현장도 포함되어 있다.

김민영 교수(군산대학교 행정경제학부)는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부대와 관련된 군사 시설로 추정되며, 태평양전쟁과 6.25전쟁



군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인공동굴 7기가 확인되었다.

관련 유적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므로 여러 가지 학술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기문 군산대 박물관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현장인 만큼 문헌자료 수집과 주민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중요하다"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존과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